

무형문화유산 및 소프트 파워 - 관계에 대한 탐구

한나 슈라이버(Hanna Schreiber)

무형문화유산 및 소프트 파워 - 관계에 대한 탐구

●한나 슈라이버(Hanna Schreiber) 박사
바르샤바 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조교수,
무형문화유산 폴란드위원회 부의장

개요

이 논문은 조셉 나이(Joseph Nye)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 개념을 제시하고 소프트 파워와 무형 문화유산 개념과의 관계를 탐구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주된 기준점은 *유네스코 2003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및 두 개의 선택된 '소프트 파워' 랭킹인 *소프트파워 30* 과 *엘카노 글로벌위상 지수(Elcano Global Presence)*이다. 유럽연합 회원국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또는 중국과 같이 이 순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도 특히 중요하다. 저자는 로라제인 스미스(Laurajane Smith)의 '공인된 유산 담론(Authorized Heritage Discourse)'과 함께 '무형유산 담론'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담론이 등장했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유네스코가 이 두 담론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어서 이들 담론이 특정 국가의 '소프트 파워'랭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표제어

'소프트 파워', 유럽연합, 유네스코, 공인된 유산 담론(Authorised Heritage Discourse), 무형유산 담론, 중국, 미국, 영국,폴란드.

서문

권력(Power)은 날씨와 같다. 모든 사람들이 권력에 영향을 받고 권력에 대해 말하지만 권력을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농부나 기상학자들이 날씨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 지도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권력 관계의 변화를 기술하고 예측하려고 한다. 또한 권력은 사랑과 같아서 정의를 내리거나 측정하기보다는 경험하기가 더 쉬우며, 따라서 더 현실감이 있다.(조셉 나이)

'소프트파워'는 25년 전에 조셉 나이(Joseph New)가 공적 담론과 과학 담론에 도입한 용어이다(Ney, 1991). 국가의 파워는 그 국가가 가진 매력이나 국가의 공유 가치에 대한 공감대에 기초하고 있으며, 군사적 및 경제적 잠재력에서 나오는 폭력, 강요 및 억제력에 기초한 하드 파워·'당근과 채찍' 정책에 근거한 무력의 힘·와 구별된다(나이, 2007, 34 - 35 쪽). 조셉 나이는 *국가의 소프트 파워는 3 가지 자원 즉, 문화(다른 나라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문화), 정치적 가치(국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치적 가치) 및 외교 정책(타인들이 그것을 합법적인 도덕적 권위로 간주 할 경우에 기초한다)*고 말한다(나이, 2007, 40 쪽). '소프트파워'를 떠받치는 기둥중의 하나가 문화이므로 문화의 한 축인 무형 및 유형의 문화유산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균형을 이룬 결합이 국가의 진정한 '스마트 파워'로 간주된다(나이, 2007, 188 쪽).

그러나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이 미디어, 문화 기관에서 채택한 전략, 국가의 소프트 파워 랭킹에 대한 높아지는 관심, 여러 국가의 정치인들 및 유네스코를 포함한 국제기구의 주요 인사들의 선언에서 등장하는 것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지는 10년 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문화 정책 분석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21세기에 들어와서 자신의 문화가 가진 주된 역할을 인식하고 있는 국가들은 '전세계 소프트 파워 경쟁'에 참가하기 시작했다(Holden, 2013). 이 개념은 지난

10년 사이에 사이먼 앤홀트(Simon Anholt)가 개발한 국가 브랜드(national branding)라는 대중적인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사이먼 앤홀트는 자신의 책에서 나이(Nye)에 대해 언급한다(앤홀트, 2005, 24 쪽). 소프트 파워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가장 강력한 국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여기에는 의심할 바 없이 미국이 포함되며,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중국, 일본도 포함된다. 따라서 국가 브랜드 순위는 유네스코의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 수단인 *세계유산목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 지표들을 포함하는 소프트 파워 순위와 병행하여 정해진다.

소프트 파워 개념의 기념일은 2006년 발효된 2003년 *무형 문화유산보호협약*이하 2003년 *협약* 10주년과 궤를 같이 한다. 그이후로 각 국은 자국의 무형문화유산(ICH)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최대한 많이 등재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활동들(국가 목록 작성, 서면 준비 및 후보 제출은 대부분의 경우 돈과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다)은 문화의 힘 -국가의 소프트 파워- 이 현대 국제 관계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확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국제 문화유산의 각축장인 유네스코에서 국가의 위치 -주로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무형 문화의 숫자에 의해 정해짐-와 국가의 소프트 파워 순위 간에 사실적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저자가 제기하는 추가적인 문제는 유네스코가 감독하고 있는 유산 담론에서 유네스코의 입장과 유네스코와는 별개인 문화유산 분야에서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국가들 및 가장 일반적인 소프트 파워 랭킹인 *소프트 파워 30*(Soft Power 30)과 *엘카노 글로벌 위상 지수*(Elcano Global Presence Index)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을 고려하여 2003년 유네스코 *협약* 발효 후 10년(2006-2016년)에 대해 분석한다.

문화유산 및 '소프트 파워' - 전인미답의 관계

특히, 국제관계 학문분야 내에서 '소프트파워' 개념이 가진 인기를 고려하면, 소프트파워 개념이 가진 잠재력이 문화유산 연구(또는유산학(heritology)², 여기에는 유산 관리 및 유산보존이 포함된다) 분야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다. 문화유산을 다룬 이름 있는 출판물들 가운데에서 문화유산과 국가의 소프트파워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 단행본은 찾아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최근 10 년 동안 세계적인 출판사들 대다수에서 그러한 연구 발행물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 특별한 분야가 자리를 잡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한 출판물의 예로는 루틀리지(Routledge)에서 나온 '문화유산에서의 주요 이슈(Key Issues in Cultural Heritage)' 및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의 '문화유산법률 및 정책(Cultural Heritage Law and Policy)' 등이 있다.

이 개념과 문화유산과의 관계에 대해 일부 소수의 서적에서 간헐적인 언급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학술지에서도 등장한다(Jacobs, 2012). 한편으로 전술한 관계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거의 없는 이유는 국제 관계 연구자들과 유산 연구자들 간에 새로운 이론적 개념에 대한 소통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론적 개념은 -만약 유산 연구 및 컨소시엄에서 직접 유래된 것이 아닐 경우- 주로 법학, 고고학, 박물관학, 문화 인류학 및 예술사와 같은 학문으로부터 기원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교정책의 관점에서 수행되는 국가의 문화 외교에 대한 연구와 국제관계 내에서의 국가 위상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에 따른 방법론적인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이것은 정치 연구라고 정의된 분야의 바깥에 있는 연구자들에게는 특히 어려울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문화유산에 관심이 있는 정치학 분야의 연구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야인 문화 정책, 문화 외교 또는 국가 이미지 관리 그 자체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에 대한 강한 정치적인 인식과 이 인식이 중요한 문화유산의 연구자들이 현대적인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할 때 어떻게 관련 되는지에 대한 의미있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은 가히 놀랄만하다. 에와 클레코트(Ewa Klekot)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한다.

...유산의 정치적 사용에 대해 글을 쓰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주제에 대해 서술하는 것은 비-정치적 유산이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의 근원은 근대성이라는 정치적 토대들 중 하나와 연관되어 있다. 종종 기억의 정치라고 여겨지는 유산은 비-정치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유산의 일차적 기능은 그 구성원들이 공동체라는 공통된 관념으로 하나로 결속되어 있는 기존의 근대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정당화이기 때문이다(클레코트, 2014, 46-47 쪽).

문화유산은 국가의 활동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국가가 정책(외교 정책 포함)과 공공외교를 구성하는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날 두 번째로 강력한 문화(물질적, 자연적) 유산의 구현인 무형문화유산이란 개념은 정체성, 관습 및 세대를 통해 재생산된 일련의 과정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 덕분에 공공 외교를 형성하고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데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가 되었다. 무형문화유산은 데이비드 로벤탈(David Lowenthal)이 '새로운, 세계적 종교'라고 부르는 현대의 광범위한 '유산숭배'의 틀 속에서 발생한다(1998, 1 쪽). 유산숭배는 오늘날 유산에서 기인하는 특별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는데 사용된다(해리슨, 2012, 스미스, 2006). 이 역할은 상당 부분 정치적인 것인데, 여기서 '유산'(세계유산' 또는 '무형유산'의 형태)이라는 라벨을

불일 개별 국가 및 국제적 공동체의 결정(예를 들어 유네스코를 통한 결정)을 통해 수용 가능한 국가, 단체 또는 구성 단위의 정체성의 형식을 정당화하고 결정한다. 이러한 허용 가능한 정체성의 형식은 정체성이 *기존의 국제인권,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상호존중이라는 요건과 양립이 가능해야만* 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관습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아래의 2003 년 *협약* 제 2 조의 정의 참조). 로벤탈에 따르면, 이 새로운 '유산 송배'의 '바티칸'은 유네스코의 파리 본부에 있으며, 2003 년에 새로운 '교리-즉, 무형문화유산-의 존재가 전세계에 공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슈라이버, 2016, 55-56 쪽).

무형문화유산 - 새로운 유산 담론인가?

2003 년 *협약*에서 무형문화유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무형문화유산은) 도구, 사물, 공예품 및 이것들과 관련된 문화적 공간뿐만 아니라 관습, 재현, 표현, 지식, 및 기술, 즉 기존의 국제인권기구 및 공동체, 그룹 및 개인들 간의 상호 존중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건과 양립 가능해야 한다(협약 제 2 조).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의는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전례없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르면, 유산은 변할 수도 있는 것으로 끊임없이 재창조 되는' 관습의 영역으로 간주된다. 또한 '진정성의 원칙'에 따라 예전에는 원래의 형식 그대로 보존되어야 했던 유산 개념을 현대적 개념으로 재조정한다. 결과적으로 유산은 살아 있고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도그마를 채택하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어떤 것이든 유산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까지 이어진다(Howard, 2003).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의의 결과로, 유산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이 채택되어 문화적 기념물에 대한 과거의 '기록 보관(archival)차원의 내러티브가 문화적 관습에 대한 현재의 인류학적 내러티브로 대체되었고, 더 나아가 유산 보유자인 개인, 단체 및 공동체를 포함하는 담론이호응을

얻으면서 전문가 담론이 가진 독점적인 권위가 박탈되었다(Waterton 및 Smith, 2005, 11 쪽). 이러한 실체-개인, 그룹 및 공동체-은 2003 년 *협약*에서 처음으로 문화유산의 기본 '중개자(mediator)'로 등장하는데,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산 지정 진행 절차의 각 단계에 대한 그들의 의견은 무시될 수 없다. 이 새로운 '무형문화유산 담론'은 유산에 관한 이전의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을 폭로했으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규칙과 원칙(무형성, 대표성, '현재성'및 '지역성')의 도입을 통해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 이러한 서구 중심의 담론적 관행에 따라, 10 년 전 로라제인 스미스(2006)는 공인된 유산 담론(Authorized Heritage Discourse, AHD)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새롭게 제기된 무형유산 담론(IHD -저자에 의해 제안됨(공인된 무형 문화유산 담론- ICHAD)를 제안한 Sargent, 2016 년 참조))은 이전의 담론에서 요구되는 합법적 기준-유엔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으로 인권 준수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 준수이다-을 유지했다. 심지어 로라제인 스미스와 엠마 워터톤(Emma Waterton)은 이런 이유로 *유산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중요한 정치적 및 문화적 결과를 전달하는 다수의 경쟁하는 담론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Waterton 및 Smith, 2005, 11 쪽). 사전트(Sargent)는 새로 등장한 이 담론이 *유산 선정 과정에서의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이는 정치에 휘둘리는 것일 뿐이고 아무런 장점도 없는 것이며*, 문화유산의 엘리트주의적이고 제국적인 유럽 기원설을 상쇄하기위해이 담론이 공인된 유산 담론(AHD)에 대항할 수있을것이라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담론을 회의적으로 분석한다(Sargent, 2016, 49-50 쪽).

두 가지 담론(AHD 와 IHD)과 국가들 간의 이같은 일부 편향된 경쟁 관계 속에서 유네스코는 문화적 합법성이란 게임의 규칙을 부과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는 특정한문화적 발현의 기능을 '유산'으로 인정하고, 공인하며, 정당성을 부여한다(Smith, 2006, 111 쪽). 사명이 전례없이 중요해진 유네스코는 문화 및 문화유산 분야에서

수행하는 역할로 인해 상당한 소프트 파워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인식하며, 국제 연합의 *지적 기관*으로서 국제 기구들 속에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는데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휘한다(UNESCO, 2016d). 새로운 국제법 - 2003 년 *협약*의 출현과 이에 따른 새로운 무형문화유산 개념의 도입은 점점 더 많은 유산 합법화 과정을 보호하는 조직으로서 유네스코가 가진 소프트 파워의 강화로 이어졌다(Schreiber, 2016).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어젠다, 2030)로서 2015 년 9 월에 채택된 2015 년 이후의 새로운 유엔 개발 목표(*2015 년 이후 개발 아젠다*)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 과정에서 소프트 파워 개념은 유네스코의 역할과 임무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대표적인 아이디어가 되었다. 2014 년 4 월에 유네스코가 작성한 *소프트 파워 어젠다*라는 제목의 문서 서문¹⁰에서 유네스코 사무총장인 이리나 보코바(Irina Bokova)는 유네스코가 소프트 파워의 핵심적인 행위자라고 말했다.

무형문화유산 - 국가가 '소프트 파워'를 얻는데 효과적인 도구인가?

이 새로운 개념이 매력을 발산하게 된 것은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방법이 매우 혁신적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2003 년 *협약*에서 구체적인 매개물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문화유산 예찬'을 대표하는 가장 눈에 띄는 국제적인 '홍보물' - 유네스코 1972 년 *협약*에서 작성되었고 현재 1,000 개 이상의 유산이 등재되어 있는 *세계 문화자연 유산 목록*이 좋은 평가를 거두었기 때문에 UNESCO 2003 *협약*에서 그 방법을 다시 활용하려는 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과 *인류무형문화유산대표목록*이

작성되었다. 이 목록에는 현재 365 개가 등록되어 있다(2016 년 12 월 현재). 이 국제 조약에 대한 빠른 비준 속도 및 *대표 목록* 등재를 기다리는 다수의 후보 명단을 통해 국제 관계에서 국가의 이미지를 구축할 때 문화유산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국가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탁월한 유네스코의 1972 년 *세계문화자연유산 보호 협약*은 협약 발표 후 40 년에 걸쳐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비준을 받았다(192 개국). 그런데 2003 년 *협약*은 불과 10 년이 지난 2013 년에 150 개국으로부터 비준을 받았다. 2016 년 12 월까지 당사국 수는 171 개국에 달했다. 따라서 비준 속도를 감안할 때 협약 15 주년인 2018 년에는 비준 국가 수가 190 개 국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수치는 그 협약에 주요한 논쟁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수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협약을 비준한 모든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보여준다(Schreiber, 2014).

소프트 파워라는 무형의 '기준'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시적인 관심을 가지는 방법은 바로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올리는 것이다. 그러한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은 유산의 특정 종목을 목록에서 제외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유네스코가 채택한 특정 기준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의 특정 종목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대표' 목록으로 명명한 주된 이유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계층적이고 가치 판단적 접근법을 피하려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그 중 *세계유산목록*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적 및 자연적 대상물만을 수집하겠다는 주장으로 인해 비판 받았다 - 1972 년 *협약* 제 1 조 참조) 최종 결과는 거의 동일하다. 바바라 커스헨브랏-김블렛(Barbara Kirshenblatt-Gimblett)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세계유산은 우선 목록에 등재된다. 목록에 있는 모든 유산은 과거에 어떤*

상황에 놓여있었는지 간에 이제 [목록에 있는] 다른 유산과의 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 목록은 그 목록에 있는 모든 유산의 가치를 보여준다(Kirshenblatt-Gimblett, 2004, 57 쪽). 따라서 현재 무형문화유산은 우선 대표 목록에 있는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수백 개의 랭킹에서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순위에 집착'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심지어 2014년에는 이코노미스트지가 랭킹을 매기기도 했다),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은 -최초에 정한 전제와는 반대로- 국가가 질적 및 양적인 측면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를 갈망하는 또 다른 순위표가 된다. 그 어떤 목록에도 무형문화유산이 등재되지 못했다는 것은 명성과 이미지 및 소프트 파워를 향한 전세계적인 경쟁에서 국가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가시적인 증거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유산 목록의 모든 형식에 등재된 항목의 수가 많을수록 국가의 소프트 파워는 더 커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더 강력한 소프트파워를 갖기 위해서는 유산의 보호 및 보호조치를 다루는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행정부 인력과 해당 유산을 해외에 알리는 것을 포함하여 문화 정책에 할당된 적절한 재정자원의 가용성, 그리고 선택된 목록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련하게 국가 간의 연합을 구성해 내는 능력을 포함하여 국제 무대에서의 효과적인 외교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록에 등재되는 것은 지금의 정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문화 외교 영역 내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과정의 총결산이다. 왜냐하면 소프트 파워 게임에도 필수불가결한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Schreiber, 2016). 그런데 문화/유산이 가진 파워가 실제로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반영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다른 비-문화적 요소에 의해 보상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문화 지표가 주어진 소프트 파워 랭킹 순위에서 국가가 얻은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문화 지표에서 국가의 파워를 측정할 때 유네스코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두 가지 소프트 파워 랭킹 -포틀랜드 커뮤니케이션즈(Portland Communications)의 소프트 파워 30 과 엘카노 왕립 재단(Elcano Royal Institute)의 엘카노 글로벌 존재 지수(Elcano Global Presence Index)-를 선택했다.

포틀랜드 커뮤니케이션즈(Portland Communications)의 파트너이자 소프트 파워 30(Soft Power 30)을 만든 조나단 맥클로이(Jonathan McClory)는 자신의 2016 년 보고서 새로운 설득자(The New Persuaders). 소프트 파워 국제 랭킹(International Ranking of Soft Power)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세계 관객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매혹시키는 능력은 국가의 번영, 안보 및 국제 영향력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McClory, 2016, 11 쪽). 그는 6 개의 다른 지표(객관적인 데이터로 명명된 지표로 요리, 기술 제품, 친숙함, 문화, 명품, 외교 정책, 생존 능력 등 새로 추가된 주관적 데이터가 뒤따랐다)에 따라 분류된 30개 국가의 순위를 제시한다. 2010년 이래로 영국 정부 연구소(British Institute of Government)에서 그가 개발해 온 방법(나중에 그는 자신의 개인 회사인 포틀랜드 커뮤니케이션즈로 자리를 옮긴다)은 새로운 지표를 사용하여 나이(Nye)의 소프트 파워 개념을 보완한다. 그의 최신판에 따르면 국가의 소프트 파워에 미치는 영향은 문화, 정부, 참여(여기서는 공공 외교), 디지털화 수준, 기업(저자는 비즈니스를 위한 조건을 형성하는 경쟁력 및 혁신적인 성격의 관점에서 기업을 이해하는데, 따라서 전통적인 경제 이슈가 '하드 파워'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 또한 지표에 등장한다) 및 교육 (2015년 까지는 '문화' 지표 아래에 숨겨져 있었다)과 같은 객관적 데이터에 의해 결정된다.

'문화'(객관적 데이터) 지표는 각각 다음의 요소들로 구성된다. 국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세계 관광기구에서 가져온 자료), 관광객이 사용한 금액(평균), 주요 영화제에 출품하는 영화의 수, 국외에서 '상위 5위'로 분류되는 음악 앨범의 수, 창의적인 재화 수출, 올림픽에서 딴 금메달 수, 국내에 있는 외국 특파원의

수(언론인), 자국어가 미치는 범위, 세계 100 대 중요 박물관 목록에 있는 박물관 연간 방문객 수, FIFA 랭킹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사이트 수 등. 2016년에는 국적 항공사의 품질이라는 추가 요소가 등장했다. 국적 항공사가 없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가장 큰 항공사를 대상으로 했다(McClory, 2016, 32 페이지). 유네스코 *대표 목록*을 문화 지표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네스코 목록을 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통합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수있다(따라서 유네스코 대표 목록이 소프트 파워를 구축하기 위한 도구로서는 여전히 취약할 수 있다). 이 *대표 목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순위의 작성자가 영국인이라는 점이며, 또한 전체 팀이 주로 영국과 미국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기때문이다(영국이나 미국은 아직 UNESCO 2003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어쨌든, 순위 자체는 놀랄 만한 것이 아니다. 상위 10 개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호주, 일본,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순이다.

두 번째 보고서: 2011 년 이후에 개발된 *엘카노 글로벌 위상 지수(Elcano Global Presence Index)*는 2016 년도 판에서 선별한 90 개 국가의 글로벌 위상에 대해 다룬다. 이 선정에는 세계 은행 자료(2014 년도 미국 달러 기준 GDP가 가장 높은 국가)에 따른 85 개 국가와

경제 규모가 작지만 OECD(경제 협력 개발기구) 회원국 및/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포함된다(Elcano, 2016, 44 쪽). 변수는 군사적 위상, 경제적 위상 및 소프트파워 위상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며, 여기서 '문화' 변수는 9 개의 '소프트파워 위상' 지표 중 하나로 등장한다. 나머지는 이민, 관광, 스포츠, 정보 기술, 과학, 교육, 개발 협력이다. 문화 변수는 세계 무역기구 자료(*국제 무역 통계*)에 따른 '시청각 서비스 수출(영화 제작,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및 음반) 지표에 의해 평가되거나, 유럽연합통계청 연감 (Eurostat) - 전체적으로 유럽연합의 존재감을 평가할 경우 -에 따라 평가된다(*엘카노 유럽 위상 지수(Elcano European Presence Index)*는 국가별 자료도 고려한다). 흥미롭게도 글로벌 위상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조직인 유네스코는 교육 분야에는 등장하지만 문화 분야에는 나타나지 않는다(Elcano, 2016, 45 쪽)

다음 도표는 유럽연합 가입일자(해당되는 경우), UNESCO 2003 *협약* 비준 일자 및 *대표 목록*상의 무형문화유산(ICH)에 선정된 숫자와 연계하여 순위를 보여준다. 2 개의 선택된 랭킹 중 적어도 하나에서 상위 10 위에 비 EU 국가인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호주, 일본, 스위스, 사우디 아라비아가 포함되었다.

EU 회원국	EU 가입년도	유네스코 2003 협약 비준 년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등재 숫자	2016 년도 소프트 파워순위 30	2016 년도 엘카노 글로벌 위상 지수
벨기에**	1958	2006	11	18	17
프랑스	1958	2006	14	5	6
독일	1958	2013	1	3	3
이탈리아	1958	2007	7	11	11
룩셈부르크	1958	2006	1	-	33
네덜란드	1958	2012	-	10	8
덴마크	1973	2009	-	13	32
아일랜드	1973	2015	-	20	27
영국	1973	-	-	2	4
그리스**	1981	2007	4	25	37
포르투갈	1986	2008	4	21	48
스페인	1986	2006	13	12	12
오스트리아	1995	2009	3	17	28
핀란드	1995	2013	-	14	50
스웨덴	1995	2011	-	9	22
체코 공화국	2004	2009	5	29	42
키프로스	2004	2006	3	-	84
에스토니아	2004	2006	4	-	80
헝가리*	2004	2006	3	26	47
라트비아	2004	2005	1	-	83
리투아니아*	2004	2005	3	-	70
몰타	2004	2017	-	-	85
폴란드	2004	2011	-	23	29
슬로바키아	2004	2006	4	-	61
슬로베니아	2004	2008	1	-	72
불가리아*	2007	2006	4	-	64
루마니아	2007	2006	6	-	53
크로아티아	2013	2005	13	-	65
소프트 파워 랭킹 중 적어도 하나에서 상위 10 위에 오른 유럽연합외국가					
호주	-	-	-	6	13
캐나다	-	-	-	4	9
중국	-	2004	30	28	2
일본	-	2004	21	7	7
러시아	-	-	2	27	5
사우디아라비아	-	2008	5	-	10
스위스	-	2008	1	8	18
미국 a	-	-	-	1	1

* 2003 협약 정부간 위원회 회원국, 임기 2014-2018.

** 2003 협약 정부간 위원회 회원국, 임기 2012-2016.

표 1.

무형문화유산 및 국가별 '소프트 파워', 한나 슈라이버(Hanna Schreiber) 편집.웹사이트: www.unesco.org, www.softpower30.portland-communications.com, www.explora.globalpresence.realinstitutoelcano.org, 2016년 12월 접속.

이들 국가 대부분은 UNESCO 2003 *협약*을 비준했다. 유일한 예외는 영국인데, 영국의 소프트 파워는 많은 다른 문화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이 영국의 소프트 파워를 현저하게 감소시키지 않으며, (실제로) 소프트 파워 순위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McClory,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를 고려하면 향후 소프트 파워 랭킹에서 영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U 외 지역의 경우, 2003 년 *협약*의 나머지 비-당사국은 호주, 캐나다, 러시아 및 미국이다. EU 회원국 중 네덜란드(2012 년), 독일(2013 년), 핀란드(2013 년), 아일랜드(2015 년)만이 폴란드(2012 년)보다 늦게 2003 년 *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모두가 폴란드보다 순위가 높다. 예를 들어 포틀랜드 커뮤니케이션즈의 *소프트 파워 30(Soft Power 30)*에서, 독일은 3 위, 네덜란드는 10 위, 핀란드는 14 위, 아일랜드는 20 위인 반면에, 폴란드는 23 위이다(McClory, 2016). 크로아티아가 EU 내에서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인 것이 흥미롭다(크로아티아는 2013 년에 EU 에 가입했다). 크로아티아는 이미 *대표 목록*에 13 개를 등재하여 남동유럽에서 항목의 개수로 1 위이며, 프랑스(14 항목) 및 스페인 (13 항목)과 함께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 앞서고 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의 브랜드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집중해 있고, 해당 지역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유네스코 사이트를 보유한 관광천국으로서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는 소프트 파워 랭킹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 국가의 경우, 국가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문화유산의 역할이 정부 차원의 시기 적절하고 효과적인 행동으로 항상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Włodkowska-Bagan, 2015, 295-309 쪽). *협약*을 비준한 135 번째 국가이자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는 20 번째로 협약을 비준한 폴란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폴란드의 문화가 폴란드의 위상을 과소 평가하게 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 지표와 관련하여 폴란드는 *소프트*

파워 30 에서 30 개국 중 23 위를 차지했으며, *엘카노 글로벌 위상 지수*에서 29 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교육' 지표에서 최고 점수를 얻었는데 이것은 소프트 파워 30 에서 15 위에 해당한다. 전체적인 결과는 23 위였다. 놀랍게도, 2015 년 폴란드의 문화 지표는 개선되어야 할 약점으로 언급되었지만, 2016 년 문화 지표는 다음과 같은 언급과 함께 '강점'으로 평가되었다.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로 유럽 및 세계 전역의 관광객이 폴란드가 제공하는 모든 문화의 맛을 점점 더 많이 느끼고 있다. 풍부한 역사, 인상적인 건축물, 주변을 둘러싼 바다, 산과 숲을 이용한 다양한 야외 활동 덕분에 작년에 1600 만 명의 관광객이 폴란드를 방문했다*(McClory, 2016).

반면에, 중국은 (알제리, 모리셔스, 일본, 가봉, 파나마 다음으로) 이미 2004 년에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2003 년 *협약*을 비준했다. 현재 *대표 목록*에는 365 개의 항목(2016 년 12 월 현재)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31 개는 중국에서 나온 것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대상물의 숫자와 관련해서는 1 등이다. 또한 중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48 개를 등재했다(UNESCO, 2015). 의심할 여지없이, 국제 포럼에서 문화유산을 홍보하는 선두 주자는 중국으로, 이를 통해 중국은 소프트 파워 순위를 상당히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소프트 파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주적 제도의 발전(29 위), 디지털화(28 위) 또는 교육(28 위)에 대한 낮은 지표 때문에 중국의 경우 불균형이 상당하다. 중국이 순위에서 거의 최하위에 해당하는 28 위이긴 하지만 그나마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문화의 힘을 강화해 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문화' 지표 덕분에 문화 분야에서 9 위를 차지하면서 상위 30 개국 안에 남아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전세계 소프트 파워 랭킹에 들어 있는 30 개국 중 다수(16 개국)가 EU 회원국이며, 이러한 결과가 EU 자체의 소프트 파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유럽문화 아젠다(European Agenda for Culture)*와 EU 가 채택한 많은 다른 공식 문서는 EU 의 소프트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의 중요성 지지해 왔다.

유럽연합은 단순한 경제적 프로세스나 교역력(Trading Power)이 아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전례 없이 성공적으로 이행된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 프로젝트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인간의 존엄성, 연대, 관용, 표현의 자유, 다양성에 대한 존중 및 문화 간 대화 - 이것들은 유지되고 장려된다면 미래에 세계에 영감을 줄 수 있는 가치이다 -와 같이 규범과 가치에 기초한 소프트 파워의 모범으로 남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유럽연합이사회, 2013, 3 쪽).

*엘카노 글로벌 위상 지수(Elcano Global Presence Index)*는 전 세계에서 EU 가 차지하고 있는 특정한 위치를 측정한다. 그 목표는 유럽연합 국경 내에 있는 회원국의 위상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수에는 유럽의 통신사(로이터, AFP, EFE, DPA, ANSA)에 의해 생성된 각 회원국에 대한 뉴스 항목의 수는 포함되지만 과장을 피하기 위해 해당 국가 자체의 통신사는 제외한다(Elcano, 2016, 40 쪽).

결론

무형문화유산 및 소프트 파워 개념은 '무형성', '부드러운 본성', 그리고 변화하는 정도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 개념에 대한 연구에는 명백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조직(entities)이 일정량의 소프트 파워를 소유할 수 있다면 영국과 같은 한 국가가 가진 소프트

파워와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 기구가 가진 소프트 파워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들의 소프트 파워에는 상호비교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독특한 구성 요소가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소프트 파워는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국가들이 가진 소프트 파워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엘카노 유럽 위상 지수(Elcano European Presence Index)*에 의해 지역적 컨텍스트 내에서 측정되는 완전히 새로운 특질이다(Elcano, 2016, pp. 11 및 19 쪽). 국제 기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예를 들어, 유네스코의 소프트 파워와 비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남은 질문은 국제 기구들의 영향력(글로벌 위상)을 비교하고 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소프트 파워 개념이 유용한가라는 것이다. 이들 국제 기구들의 경우, 그것은 단지 흥미로운 수사학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2015 년, 유네스코 사무총장인 이리나 보코바는 유네스코 70 주년을 기념하는 회의에서 *갈등, 폭력 및 분열의 시대인 작금의 상황에서 문화, 교육 및 과학은 증오와 파괴에 대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Bokova, 2015). 그러므로 유네스코만이 소프트 파워 자원을 가진 것이 아니며, 문화, 과학 및 교육 그 자체도 소프트 파워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제는 여전히 매우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 있는 이 개념의 본질을 확실하게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한편, 소프트 파워 순위를 정하는 방법론도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Wojciuk, Michalek, Stormowska, 2015, 5-6 쪽 참조). 이러한 한계 및 랭킹의 주관적 특성에 대해서는 순위를 정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소프트파워를 정확하게 측정할 때 직면하게되는 가장 큰 어려움중의 하나는 소프트파워가 본질적으로 갖는 주관적인 성격이다. 소프트 파워 30 지수는 주관성에*

반하는 기획을 시도하기보다는 주관성을 포용한다(McClory, 2016, 29 페이지). 그러나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프트 파워 개념은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분석은 아직까지도 유네스코에 의해 공인된 무형문화유산과 국가의 소프트 파워 사이의 명확한 상관 관계의 존재를 밝혀 내지 못했다. 랭킹의 선두주자인 미국과 영국은 2003년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므로 대표 목록에 등재하지 않았다. 또한 이 두 나라는 오랫동안 유네스코 바깥에 머물러 있었다. 미국은 UNESCO의 설립 멤버였지만 커져가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1984년에 탈퇴했다가 2003년에 재가입했다. 그러나 2011년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정회원국 가입이 인정되자 유네스코 활동 비용을 담당하는 상당한 분담금(유네스코 일반 예산의 22%인 약 8천만 달러)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결국 보조금을 삭감했다. 마찬가지로 영국은 1985년에 유네스코를 탈퇴했다가 1997년에 재가입했다.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대상물의 숫자가 어쨌든 국가의 소프트 파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다. 미국은 23개를 등재했고, 영국은 29개를 등재했다(UNESCO, 2016a, 2016b). 두 국가 모두 *세계유산목록*에 46개를 등재한 중국과는 거리가있으나, 1945년 설립될 때부터 조직의 일부였다. 그러나 중국의 소프트파워 순위는 이 두 국가보다 낮다(Elcano 랭킹은예외임).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가진 국가들은 유네스코가 문화유산

합법화에 대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유산 담론(공인된 유산 담론 및 무형유산 담론)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덜 쏟는다는 것이다. 작년에 7천 4백만명이 넘는 국제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미국의 문화 생산물에 매료되어 유네스코의 도움 없이도 미국을 찾았다(McClory, 2016). 영국의 소프트 파워는 영국 문화원 (British Council)과 대영 박물관과 같은 문화 기관에 의해 강화되며(McClory, 2016), 두 곳 모두 유네스코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형 및 무형의 문화유산은 '글로벌 강대국'뿐만 아니라 중소 국가 등 모든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강대국만이 유네스코와 같은 조직의 외부에서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국가의 소프트 파워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직을 무시하는 것은, 특히 중간 순위나 낮은 순위에 위치한 국가의 경우, 이미지에 장기간에 걸친 부정적인 영향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문화 소프트 파워의 부족이 곧 하드 파워의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 파워'보다 소프트 파워의 잠재력을 무시하는 작은 국가들은 약소국가로 남게 될 것이다(Schreiber, 2016, 78 쪽). 따라서 무형문화유산과 소프트 파워 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긴 하지만, 국제 정치학에서 무형문화유산을 강력한 '경화(hard currency)'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McClory, 2016, p. 20).¹²

미주

- The research for this paper was carried out and financed within the project HEURIGHT14 - The Right to Cultural Heritage – its Protection and Enforcement through Cooperation in the European Union, No. 30/DSAP-PF/ HERITAGEPLUS/2015, ERA-NET Heritage Plus 'Cultural Heritage and Global Change', Horizon, 2020.
1. Best known are Simon Anholt's Nation Brand Index (NBI) and Future Brands' Country Brand Index (CBI). However, Beata Ociepka points out that what the NBI measures largely corresponds with what the essence of soft power is. According to NBI, it is possible to, among others, select the countries that are perceived as "quality brands" because of the quality of their products, but also because of the culture, and attractive national heritage. Among six channels of brand communication selected by Anholt (branded export, foreign and domestic policy, investment and migration, culture and heritage, people, tourism) three of them could be found as partially outside of the concept of country's soft power, namely export (Nye classifies the economy as hard power), partly investment and migration and tourism, as a branch of the country's economy. See Ociepka (2013).
 2. This term was proposed by the Croatian museologist, Tomislav Šola (1982), as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ly understood museology/museography as a discipline in which the object of study is, above all, tangible objects (monuments). It indicates the need for a new paradigm of thinking about heritage as a collective experience; a process in which tangible and intangible aspects are inseparably connected. The defini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lso heading in this direction, combining the two elements – cf. Article 2 of 2003 Convention. See also Matic (2011).
 3. E.g. in Akagawa (2015) or in a publication by Luke and Kersel (2013), which explores how this relationship indicates the political entanglement of American archaeologists' work after the invasion of Iraq and analyses soft power as part of cultural diplomacy.
 4. A good example of the lack of separate treatment of cultural heritage within Polish public diplomacy using the concept of soft power is Ociepka (2013). The concept of 'heritage' appears in it only twice in the context of national heritage as an element for communicating the country's 'brand'.
 5. For a reconstruction of this mechanism, see Klekot (2014).
 6. Lowenthal refers to the Alois Riegl's speech from 1903, in which he described the social significance of practices related to monuments as 'the cult of monuments' (Riegl 2002).
 7. An important interpretation guideline formulated in line with UNESCO statements can also be found on the website of the National Heritage Board of Poland and in the instructions for completing forms for a possible inscription on the National ICH Lis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both traditional, contemporary and vibrant – it represents not only inherited traditions of the past, but also contemporary, creatively converted practices in which we participate as representatives of various social and cultural groups. Phenomena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evolving in response to a changing

environment, forming a link between our present, the past of our ancestors and the future of our children. As long as the core meaning that codifies our value system remains intact in these vibrant, changing manifestations of intangible heritage, our identity will surviv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not always original and unique. Every aspect of this heritage is important and valuable to those who practise it and to whom it provides a sense of belonging to their community. For this reason, every phenomenon deserves to survive, http://niematerialne.nid.pl/Dziedzictwo_niematerialne/, 12.02.2016.

8. See article 15 of UNESCO 2003 Convention.
9. Additionally reinforced by the new '6th Chapter of the Operational Directives' for the 2003 Convention, entirely dedic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dopted in 2015 at the United Nations Agenda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0. UNESCO's Participation in the Preparations for a Post-2015 Development Agenda Overview of Goals and Targets Proposed, document no. 194EX/14.INF.2.2..
11. See UNESCO, 2016a.
12.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3. Alongside it, based on the model of the 1972 Convention, arose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Article 17 of the 2003 Convention) and a list of programmes, projects and activities aimed at protecting ICH, named the 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 (Article 18 of the 2003 Convention). They are, however, much less popular among countries. The 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 has only 17 entries, and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has 47 elements.
14. <http://www.unesco.org/culture/ich/en/lists>.
15. For more information about controversies associated with creating the Representative List, see Hafsteinn (2009).
16. With his blessing, as evidenced by Nye's introduction to the 2015 report of this ranking (McClory, 2015, pp. 6-7).
17. For an analysis of why Great Britain did not ratify this Convention, see Smith and Waterton (2009).
18. For further analysis, see Skoko and Kovačić (2009).
19. European Agenda for Culture in a Globalizing World, COM (2007, p. 242).
20. See, inter alia,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3).
21. See, inter alia, Kounalakis and Simonyi (2011), Blanchard and Lu (2012).

참고문헌

- Akagawa, N., 2015. *Heritage Conservation and Japans' Cultural Diplomacy: Heritage, National Identity and National Interest*. New York, London, Routledge.
- Anholt, S., 2005. *Brand New Justice. How Branding Places and Products Can Help the Developing World.Revised Edition*. Elsevier Butterworth-Heinemann.
- Blanchard, J-M. F. and Fujia, L., 2012. 'Thinking Hard About Soft Power: A Review and Critique of theLiterature on China and Soft Power' in *Asian Perspective*, 36 (4): pp. 565-589.
- Bokova, I., 2015. *Culture, Education, Science Are 'Soft Power' which Can Win against Hatred and Destruction*. Available from: <http://www.bta.bg/en/c/DF/id/1232058> [Accessed February 2016]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7. *European Agenda for Culture in a Globalizing World*. Available from: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07:0242:FIN:EN:PDF> [Accessed September 2016]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13. *Use of Culture as a Soft Policy Option in EU External Relations*. Available from: <http://register.consilium.europa.eu/doc/srv?l=EN&f=ST%208235%202013%20INIT> [Accessed September 2016]
- Hafsteinn, V. Tr., 2009. 'Intangible Heritage as a List: From Masterpieces to Representation' in *Intangible Heritage* (Key Issues in Cultural Heritage), in Smith, L. and Akagawa, N. (eds.). pp. 93-111.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Holden, J., 2013. *Influence and Attraction: Culture and the Race for Soft Power in the 21st Century*.London, British Council.
- Howard, P., 2003. *Introduction to Heritage. Management, Interpretation, Identity*. London, A&C Black.
- Jacobs, M., 2012. 'Commensal Soft Power Tools for Elites in European States: Networks and Dramaturgybetween Divergence and Convergence' in *Food & History*, 10 (1): pp. 49-68.
- Kirshenblatt-Gimblett, B., 2004. 'Intangible Heritage as Metacultural Production' in *Museum International*, 56 (1-2): pp. 52-65.
- Klekot, E., 2014. 'Polityczny wymiar dziedzictwa kultury' [Political Dimension of Cultural Heritage] in *Kultura w stosunkach międzynarodowych. Tom 2: Pułapki kultury* [Culture in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 Pitfalls of Culture], in *Grażyna M., Justyna N., and Hanna S.* (ed.). Warszawa, Wydawnictwo Uniwersytetu Warszawskiego, pp. 46-62.
- Kounalakis, M. and Andras, S., 2011. *The Hard Truth About Soft Power*. Los Angeles: Figureoa Press. Availablefrom:<https://uscpublicdiplomacy.org/sites/uscpublicdiplomacy.org/files/useruploads/u35361/2011%20Paper%205.pdf> [Accessed December 2016]
- Lowenthal, D., 1998. *The Heritage Crusade and the Spoils of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uke, C. and Kersel, M. M., 2013. *U.S. Cultural Diplomacy and Archaeology. Soft Power, Hard Heritage*. New York, London, Routledge.

- Matić, M., 2011. 'Conceptualization of 'Culture' within Heritology as a Paradigm' in *Anthropology Magazine*, 11 (1).
- McClory, J., 2015. *The Soft Power 30*. Available from: http://www.comresglobal.com/wp-content/uploads/2015/07/Report_Final-published.pdf [Accessed April 2016]
- McClory, J., 2016. *The Soft Power 30*. Available from: http://softpower30.portland-communications.com/wp-content/themes/softpower/pdfs/the_soft_power_30.pdf [Accessed December 2016]
- Nye, J., 1991.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New York, Basic Books.
- Nye, J., 2007. *Soft Power. Jak osiągnąć sukces w polityce światowej*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Warszawa, WAIP.
- Ociepka, B., 2013. *Miękka siła i dyplomacja publiczna Polski* [Soft Power and Polish Public Diplomacy]. Warszawa, Scholar.
- Riegl, A., 2002. 'Nowoczesny kult zabytków. Jego istota i powstanie' [The Modern Cult of Monuments: Its Character and Its Origin] in *Zabytek i historia* [Monument and History], in Piotr, K. and Krawczyk, J. (ed.). Warszawa, Oficyna Wydawnicza "Mówią Wieki": pp. 191-202.
- Sargent, S., 2016. 'Classical Horsemanship and the Dangers of the Emerge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uthorised Discourse' i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11: pp. 36-53.
- Schreiber, H., 2014. 'Niematerialne dziedzictwo kulturowe – brakujące ogniwo w systemie ochrony dziedzictwa kulturowego w Polsce. Między terra incognita a terra nulliu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the Missing Link in the Poland's System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Between terra incognita and terra nullius?] in *Dlaczego i jak w nowoczesny sposób chronić dziedzictwo kulturowe*. Materiały pokonferencyjne [Why and How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in a Modern Way. Conference Proceedings], in Andrzej, R. (ed.). Warszawa, Polski Komitet ds. UNESCO, pp. 157-174.
- Schreiber, H., 2016. 'Niematerialne dziedzictwo kulturowe jako element soft power państw'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n Element of the Countries Soft Power] in *e-Politikon*, 18: pp. 54-78.
- Skoko, B. and Vinko, K., 2009. 'The Concept of the Soft Power and Its Application in the Republic of Croatia' in *Polemos*, 12 (1): pp. 29-49.
- Smith, L. and Waterton, E., 2009. 'The Envy of the Wor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England' in *Intangible Heritage (Key Issues in Cultural Heritage)*, in Smith, L. and Akagawa, N. (eds.). pp. 289-302.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Smith, L., 2006. *Uses of Heritage*. London, Routledge
- Śola, T., 1982. *A Contribution to a Possible Definition of Museology*. Available from: http://heritology.com/Acontribution_toto_aa_possible_definition_ofof_Museology__--_byy_Tomisllav_Sola.pdf [Accessed December 2016]

- The Economist, 2014. *Ranking the rankings*. Available from: <http://www.economist.com/news/international/21631039-international-comparisons-are-popular-influential-and-sometimes-flawed-ranking-rankings> [Accessed September 2016]
- UNESCO, 1972.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 UNESCO,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UNESCO, 2014. *UNESCO's Participation in the Preparations for a Post-2015 Development Agenda Overview of Goals and Targets Proposed*. Available from: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2/002273/227355e.pdf> [Accessed September 2016]
- UNESCO. 2015. *Key Facts and Figures on China / UNESCO Cooperation*. Available from: http://www.unesco.org/eri/cp/factsheets/CHN_facts_figures.pdf [Accessed March 2016]
- UNESCO. 2016a. *Soft Power Agenda*. Available from: <http://www.unesco.org/new/en/unesco/about-us/who-we-are/director-general/my-priorities/soft-power-agenda/> [Accessed March 2016]
- UNESCO. 2016b. *Key Facts and Figures on USA / UNESCO Cooperation*. Available from: http://www.unesco.org/eri/cp/factsheets/USA_facts_figures.pdf [Accessed March 2016]
- UNESCO. 2016c. *Key Facts and Figures on UK / UNESCO Cooperation*. Available from: http://www.unesco.org/eri/cp/factsheets/GBR_facts_figures.pdf [Accessed March 2016]
- UNESCO. 2016d. *Introducing UNESCO*. Available from: <http://en.unesco.org/about-us/introducing-unesco> [Accessed December 2016]
- Waterton, E. and Smith, L., 2005. 'There Is No Such Thing as Heritage' in *Taking Archaeology out of Heritage*, in Waterton, E. and Smith, L. (ed.). Cambridg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pp. 10-27.
- Włodkowska-Bagan, A., 2015. 'Środki i metody polityki zagranicznej państw średniej rangi. Casus Polski po 1989 r.' [Resources and Methods of Medium Rank Countries' Foreign Policy. The Case of Poland after 1989] in *Bezpieczeństwo międzynarodowe. Polska–Europa–Świat* [International Security. Poland–Europe–the World], in Zając, J., Włodkowska-Bagan, A., and Kaczmarski, M. (ed.). Warszawa, Wydział Dziennikarstwa i Nauk Politycznych: pp. 295-309.
- Wojciuk, A., Michałek, M. and Stormowska, M., 2015. 'Education as a Source and Tool of Soft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European Political Science*, 14 (3): pp. 1-20.